

## 中國 圖書館學情報學 領域의 國際化 問題\*

段 明 蓮 著\*\*

曹 炯 鎮 譯\*\*\*

### 목 차

- |                                   |                        |
|-----------------------------------|------------------------|
| 1. 中國 圖書館學情報學 領域의 광범한 對外交流와 合作    | 1.3 國際 資料交換 業務         |
| 1.1 中國 圖書館界와 有關 國際組織의  광범한 交流와 協力 | 2. 文獻資源의 共有 問題         |
| 1.2 國際 學術交流·人員交流 및 技術合作           | 2.1 文獻 著錄의 一致性         |
|                                   | 2.2 文獻 著錄規則의 統一性       |
|                                   | 3. 中·韓 양국의 相互協力에 대한 建議 |

도서관 사업은 사회의 발전을 따라서 발전하고 과학기술의 향상을 따라서 부단히 자신의 활력을 증가하고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을 따라서 협력 활동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국제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본고는 중국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대외적인 학술교류 자료교환 및 문헌업무의 표준화 등 방면으로부터 언급을 하여 한국의 동료들과 함께 연구 토론하고자 한다.

### 1. 中國 圖書館學情報學 領域의 광범한 對外交流와 合作

일찌기 1972년 중·미 양국의 최고 지도자는 양국 간의 여러해 동안 달혀있던 문호를 열었다. 특히 중국은 대외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진일보하여 세계 각국과의 관

\* 본 논문은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서지학회의 1994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정리한 것임.

\*\* 中華人民共和國 北京大學校 情報管理學科 副教授. 韓國 延世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客座教授.

\*\*\* 江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助教授.

접수일자 : 1994. 7. 26.

계를 개선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중국과 한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세계 각국과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학술교류 및 우호협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선결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현재 중국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대외교류는 날로 빈번하여져서 국외 동료와의 쌍방 또는 다방면의 학술교류와 협력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 1.1 中國 圖書館界와 유관 國際組織의 광범한 交流와 協力

금세기 20년대에 중국 도서관계는 이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前身 조직의 활동에 참여했다.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1981년에 이르러서 중국은 정식으로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 회원자격을 회복하였다. 중국도서관학회(China Society of Library Science)는 유일하게 중국을 대표하는 IFLA의 회원이 되었다. 북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上海도서관·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북경대학 정보관리학과·清華대학 도서관·臺灣대학 도서관·臺北 출판물국제교환센터 등 약 20여 도서관과 도서관학 연구기구는 IFLA의 단체회원이 되었다.<sup>1)</sup> 중국의 도서관계와 IFLA는 또한 IFLA와 세계각국의 도서관계를 통하여 우호적인 합작 관계를 유지 발전하기로 하였다.

1988년 중국도서관학회 부이사장 史鑿, 상무이사 王振鳴 등 일행 12명은 IFLA의 연차 총회에 참석을 하였고, 또한 속개된 “국가도서관 관장회의” 및 “중국도서관사업 국제전망토론회”의 두 회의에 참가하였다. 북경도서관 관장 邵文杰은 “국가도서관 관장회의”에서 북경도서관의 설계·건축 및 사용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또한 새로 녹화한 신관의 칼라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여 각국 국가도서관 관장의 절대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중국의 국민과 정부가 도서관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칭찬하면서 중국 방문을 요구하였고 중국 도서관계와의 교류를 추진하기를 기대하였다.<sup>2)</sup>

가장 언급할만한 것으로는 1993년 8월, 중국 문화부 도서관국의 杜克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그가 인솔하는 '96 IFLA 북경대회 준비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제 59회

1) 杜克, “中國圖書館事業的過去, 現在和將來”, 北京圖書館館刊, 1992년 제 2기, p.22.

2) 邵文杰, “記國際圖聯1988年大會及兩次會後會”, 北京圖書館通訊, 1989년 제 1기, p.79.

IFLA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연차 총회에서 가장 흥분할만한 소식은 북경 도서관 부관장인 孫蓀欣이 237표로 IFLA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것이다.<sup>3)</sup> 이는 중국 도서관학회가 IFLA에서의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한 후에 중국대표가 처음으로 집행위원회 위원에 당선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지위가 높아진 것을 충분히 나타낸 것이고, 중국 도서관계와 세계 각국의 도서관계의 밀접한 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현재 중국 도서관계는 중국 정부의 지지 하에 1996년 IFLA 북경 연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다. 나는 한국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동료들과 1996년에 북경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국의 도서관계는 IFLA와의 관계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國際標準化組織의 제 46 技術委員會(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Technical Committee 46, 약칭 ISO/TC46)와 적극적으로 합작하고 있다.

1979년 중국은 全國 情報文獻業務 標準化 技術委員會(The National Technical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for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약칭 NTCSID=全國 文標會)를 조직하였다. 全國 文標會는 國家 標準局(The China State Bureau of Standards)의 지도 하에 전국성 정보문헌업무 표준화 기술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이다.<sup>4)</sup>

이 위원회 아래에 비서처 1개와 ISO/TC46의 각 분과기술위원회와 협력할 분과기술위원회 9개를 설치하였다(<표 1> 참조).

全國 文標會의 조직은 ISO/TC46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그와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 하였으나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각 분과기술위원회 간의 횡적관계를 강화하고, 각 분과기술위원회가 제정한 국가표준에 협력하며, 문헌업무 표준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SC1. “종합협력 분과기술회”를 증설하였다. 둘째, ISO/TC46은 1987년 모스크바회의 후, 분과위원회의 업무분담을 조정하여 원래의 SC5·SC6·SC7을 폐쇄하고 SC9. “문헌의 외형·식별과 묘사 분과기술위원회”를 두었다. 그런데 중국은 정보문헌 업무의 국가기초표준을 아직 제정하지 못하여 분과기술위원회는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中國 文標會의 조직기구가 어떻게 설치되었건 간에 그 취지는 ISO/TC46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정보문헌 업무의 국가표준의 제정·수정·관리 및 보급업무를 책임지고, 또한 정보문헌 업무 표준화를 조직하는 과학연구와 학

3) 王漢平, “北京 '96IFLA大會籌備工作團赴巴塞羅那側記”, 北京圖書館館刊, 1993년 제 3/4기, pp.196-197.

4) 全國情報文獻工作標準化技術委員會章程. 見:全國情報文獻工作標準化技術委員會秘書處, 情報文獻工作標準化手冊〔北京〕: 証記書處, 1989), p.7.

〈표 1〉 ISO/TC46과 全國 文標會 조직기구 대조표

| ISO/TC46 |                    | 全國 文標會 분과기술위원회 |                        |
|----------|--------------------|----------------|------------------------|
| 분과기술위원회  | 업무범위               |                |                        |
|          |                    | SC1            | 종합협력 분과기술위원회           |
| SC2      | 서면·언어 전환           | SC2            | 문자 음역 轉寫 분과기술위원회       |
| SC3      | 문헌업무의 용어           | SC3            | 정보문헌 업무용어 분과기술위원회      |
| SC4      | 정보와 문헌업무에서의 계산기 응용 | SC4            | 문헌정보 업무자동화 분과기술위원회     |
| SC9      | 문헌의·외형 식별과 묘사      | SC5            | 문헌 주제편목 분과기술위원회        |
|          |                    | SC6            | 문헌 저록 분과기술위원회          |
|          |                    | SC7            | 출판물 양식 분과기술위원회         |
| SC8      | 통계                 | SC8            | 문헌 통계 분과기술위원회          |
| SC10     | 문헌의 물질 보존          | SC10           | 종이의 보존 및 보호 기술 분과기술위원회 |

술활동의 임무를 책임지고 있다. 全國 文標會는 1979년에 성립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된 주제표준에 근거하여 GB2901-82[문헌목록 정보교환용 테이프 양식]·GB3468-83[연속간행물 검색편제총칙]·GB3792.2-85[普通圖書 著錄規則]·GB3860-83[문헌주제 편목규칙] 등 정보문헌 업무 방면의 국가표준을 30여개나 제정하였다. 이밖에 중국은 ISO/TC46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이므로 수시로 대표를 파견하여 ISO/TC46의 전체 회의와 각 분과기술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동료들에게 관련된 국제표준을 소개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中國 文標會와 ISO/TC46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 도서관계는 또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FID)·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ISDS) 등 국제조직과 적극 협력하여 갈수록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북경도서관에 ISDS 중국 국가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1986년부터 이 센터는 집중적

으로 중국에서 발행하는 연속간행물 통계를 즉시 ISDS 국제센터에 보내어 세계 범위의 문헌정보 교류와 공유에 참여하고 있다.

## 1.2 國際 學術交流·人員交流 및 技術合作

도서관 사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술문제를 토론하고자 한다. 중국은 각종 과학교류의 방식과 각종 학술교류의 길을 통하여 세계 각국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단체 및 개인과 우호적인 왕래를 증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학술교류와 인원교류 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1) 학술교류의 방식이 꾸준히 심화되고 있다. 과학교류의 방식은 구두교류·서면교류 및 수화교류를 포함한다. 중국은 국제 간의 학술교류에 있어서 주로 앞의 두 가지 교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류방식은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데, 즉 유학생의 교환·도서관 사서의 교환·교환교수의 상호파견·강연을 위한 전문가 파견·외국 방문·전문학자의 방문 초청·출국 시찰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술교류와 인원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78년에서 1988년의 10년 동안 中國圖書館學會 대표단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필리핀·서독·캐나다·미국 등 10여개 국가를 차례로 순방하였고 각국의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연구도서관을 참관하였다.<sup>7)</sup> 이밖에 중국의 많은 도서관은 대외교류가 활발하다. 현재 북경도서관을 예로 들면 1990년에 11회에 걸쳐서 23명이 8개 국가를 방문하였고, 203회에 걸쳐서 1,424명의 내방객을 접대하였다. 중·일 양국의 국가도서관은 업무교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데 1990년에 북경도서관 부관장 邵文杰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일본에 가서 제 10차 회합을 진행하였다. 1992년 중·한 양국의 수교는 도서관계의 교류방문을 강화하였다. 1993년 한국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병목 교수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조원호 선생은 차례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각각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북경도서관과 양국 수교 후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합작과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이교수는 양

7) 張帆, “十年國際學術交流的回顧與反思.” 見: 中國圖書館學會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1), p.84.

국 수교 후 中國科學院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한국 학자이며 아울러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와 중·한 양국의 문헌정보학 영역의 합작 문제를 상의하였다. 1994년 2월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의 연구 사서인 閻立中과 中國科學院 上海 文獻情報센터의 도서관 관장 雋義臺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상호방문은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와 한국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합작센터로 하여금 상호 이해와 평등호혜의 기초 위에 쌍방이 협의하여 1994년 3월 5일에 과학기술 정보교류에 대하여 합작 협의를 이루어내도록 촉진하였다. 이는 중·한 양국의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합작과 교류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과학교류의 과정에서 학술회의는 매우 좋은 교류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구두교류와 서면교류가 결합된 산물로 과학발전과 과학교류의 과정에서 점차 형성된 것이며,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장소이며, 얻기 어려운 문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관련 영역의 발전 동향을 제때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토론하는 장소이다. 중국의 도서관계는 수시로 학술회의 전시회 등의 방식을 통하여 외국 동료들과의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들면 1986년 IFLA와 합작하여 북경에서 “도서관학정보학 교육과 연구 국제학술회의”를 거행하였고, 1987년에는 북경에서 “중문 문헌처리 자동화발전전략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1992년에는 중국에서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국제회의를 3개나 연속적으로 거행하였다.

1992년 5월 중국 西安에서 “현대 도서관장서와 자원공유 국제학술회의”를 거행하였다. 회의는 도서관의 사회환경·협력구입·데이터베이스 처리·정보검색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였다.<sup>8)</sup>

1992년 9월 8일에서 10일까지 北京에서 “90년대 도서관 현대 기술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하였다. 미국·영국·일본·대만·홍콩 등 14개 국가로부터 27명의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IFLA의 제일 부의장 鮑登과 UNESCO의 駐中 대표인 武井士魂이 초청되어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90년대의 도서관·전자정보와 다중매체·서목통제와 다중처리·도서관협력망·레이저 디스크 기술의 응용과 90년대의 도서관 기술교육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류와 토론을 진행하였다.<sup>9)</sup>

8)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 Nov./Dec., 1993, p.34.

1992년 10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북경에서 “제 3회 중문정보처리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내의 계산기 전문가·중문 정보처리 전문가·하드·소프트 엔지니어 및 대학교수 등 각 방면의 대표 300여 명이 회의에 출석하였다. 회의에서 토론한 의제는 비교적 광범한데 그 주제 내용은 계산기 언어·자료검색 체계·기계 번역·문자처리의 신기술·중문정보 처리 표준화 등의 방면에 걸쳐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 년간 중문정보 처리의 이론과 기술발전의 최신 성과 및 국제 선진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회의는 오늘날 중문정보 처리가 문자와 낱말 처리로부터 구절 처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또한 바로 대중화·진흥화·표준화·체계화·산업화의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9)</sup>

1993년 5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중국 武漢에서 “국제 도서정보학 이론과 실천 발전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8개 국가로부터 78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회의는 도서정보 직업과 학과의 발전역사·문헌정보의 편목과 검색·도서정보 교육 등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상 열거한 학술회의는 모두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동료 간의 상호 학술사상을 교류하고 개인의 학술 견해를 발표하는 장소가 되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중국과 세계 각국 도서관계와의 학술교류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2) 대외적인 인원교류의 길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관계의 꾸준한 개선을 따라서 중국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대외적인 인원교류의 길도 넓어지고 있다. 그 주요한 통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부간의 관계를 통한 출국방문과 유학, 국가 교육위원회(National Education Committee)를 통하여 파견하는 대학교 도서관학정보학과의 교원의 출국유학 또는 과학연구 종사의 기회인데 이러한 기회는 매우 적다. 둘째는 정부 이외의 관계를 통한 출국방문·유학·과학연구 종사 등이다. 현재 두번째 교류의 길은 마침 부단히 넓어져서 중국도서관학회·全國文標會 등 학술단체의 대외 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도서관 간의 교류·학교 간의 교류 등도 나타나고 있다. 1980년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의 閻立中 연구 사서는 일찌기 방문학자의 신분으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연수하였다. 1983년 許鴻英은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의 제 1차 교환 사서로 업무차 미국을 방문하였다.<sup>10)</sup> 북경대학 도서관의 양서편목과도 일찌기

9) 路學, “九十年代圖書館現代技術國際研討會在京隆重召開”, 現代圖書情報技術, 1993년 제 1기, p.63.

10) “第3屆中文信息處理國際會議在北京舉行”, 現代圖書情報技術, 1993년 제 1기, p.63.

사서를 도서관 교류의 형식으로 업무 차 미국에 파견하였다. 북경대학의 학교 간 교류의 길은 북경대학 도서관의 도서관 간의 교류의 길보다도 몇배 이상 넓은지 모른다. 북경대학은 외국의 수십개 대학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다.<sup>11)</sup> 한국의 경우 북경대학은 연세대학·고려대학·서울대학과 대학수준의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북경대학은 와세다대학·게이오대학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기타는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다. 본인이 이번엔 영광스럽게도 교환교수의 신분으로 한국의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연수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학교 수준의 교류를 통한 것이다. 북경대학 정보관리학과는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대학 간의 교류형식으로 출국하여 연수한 교원이 약 10명인데 이들은 각각 미국·뉴질랜드·네덜란드·한국·일본·구 소련 등의 국가를 방문하여 교수진용의 자질을 부단히 높이고 지식구조를 새로이 하고 있다.

(3) 학술교류와 인원교류의 국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정보학 영역의 학술교류와 인원교류의 국가와 동향은 국가 간의 관계 발전을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대외 인원교류의 국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찌기 1950년대에 중국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대외 인원교류의 국가는 주로 구 소련이었다. 연로한 교원과 도서관 사서 중에 러시아어를 이해하는 자가 매우 많다. 북경대학 정보관리학과 의 鄭莉莉 교수는 일찌기 50년대에 구 소련에서 아동도서관학을 연수하였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또 2명의 교수가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연수하였다. 1970년대부터 중국은 대외교류의 국가가 이미 유럽 미국의 선진 국가 및 일본으로까지 넓어졌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북경대학 정보관리학과는 약 9명의 교원이 차례로 미국에, 그리고 1명은 일본으로 연수 또는 유학하였다. 8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의 대외관계의 꾸준한 개선을 따라서 대외 인원교류의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중·한 양국은 수교 후 한국을 방문하는 학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현재 북경대학의 교수 5명이 한국에서 도서관학정보학을 강의하거나 연수하고 있다.

근년에 중국은 각국의 도서관계와 피차 이해와 신뢰의 기초 위에, 또 호혜합작의

11) 辛希孟, 曲紅, 中國科學院文獻情報系統的國際學術交流與合作. 見: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北京: 中國科學院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p.329.

12) 北京大學校長辦公室編, 北京大學(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3), p.4.



원칙에 근거하여 도서관 이용자 봉사업무의 협력과 기술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도서관학회와 영국도서관협회가 협정한 1986년-1988년 교류와 합작협약이 있고<sup>13)</sup>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와 서독의 에너지물리수학 정보센터가 합작한 국제 온라인검색용 IBM/PC기가 있다.<sup>14)</sup> 또 1992년 5월 북경도서관과 일본출판판매주식회사가 협정한 제 3기 일본문고 열람실험의서가 있다.<sup>15)</sup> 이 모든 것은 중국도서관계와 세계 각국의 학술교류가 점차 기술합작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중국의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은 때마침 각종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학술교류·인원교류 및 기술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국제적인 학교수준의 도서관 간의 학술교류와 합작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세계를 바라보고 시야를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며, 상호보완과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며,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인원의 자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도서관학정보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1.3 國際 資料交換 業務

과학문헌은 과학지식을 기록하는 매체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학술교류와 합작을 추진하는 공구이다. 그러나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자료 구입 경비의 긴장은 이미 각국의 도서관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 도서관의 도서구입 경비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 국제적인 자료교류를 이용하여 도서관의 수요와 공급의 모순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자료교환은 도서관이 외국의 출판물 또는 얻기 어려운 문헌을 얻는 길이며 도서관 장서를 보충하는 조치이며 각국 도서관의 문헌자원의 공유를 촉진하는 수단이다. 중국에서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을 막론하고 모두 적시에 목적 지향적으로 외국의 관련부서와 국제 교환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국제적인 자료교환은 북경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직책으로 수서업무의 한 구성 부분이다. 이는 국제교류 업무 중에서 평등호혜의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0年北京圖書館年報]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까지 북경도서관은 이미 세계의 160개 국가 1,296개 학술기구와

13) 張帆, 전체 논문, p.86.

14) 辛希孟, 曲紅, 전체서, p.335.

15) 張季華, "北京圖書館1992年1-6月大事記", 北京圖書館館刊, 1992년 제 1기, p.140.

문헌교환 관계를 수립하였다. 1990년에 북경도서관은 외국으로부터 도서(Books) 3,401종, 3,501책, 연속간행물(Periodical) 2,723종, 마이크로 필름(Microfilm) 201권, 마이크로 피쉬(Microfiche) 452장, 자료(Materials) 395책, 신문(Newspaper) 94종을 접수하였다. 외국으로는 도서 1,230종, 1,714책, 연속간행물 727종, 92,711책, 신문 64종, 80,566부를 우송하였다.(<표 2> 참조)<sup>16)17)18)</sup>

〈표 2〉 1989년-1990년 북경도서관 국제교환 업무 통계

| 통계년도             |           | 통계항목    | 1988년   | 1989년   | 1990년   |
|------------------|-----------|---------|---------|---------|---------|
| 국가               |           |         | 114개    | 106개    | 106개    |
| 교환기관             |           |         | 1,636개  | 1,295개  | 1,296개  |
| 접<br>수<br>자<br>료 | 도서        | 종 수     | 4,272종  | 4,846종  | 3,401종  |
|                  |           | 책 수     | 4,749책  | 5,205책  | 3,501책  |
|                  | 연속간행물     |         | 3,060종  | 3,558종  | 2,723종  |
|                  | 마이크로 필름   |         | 85권     | 397권    | 201권    |
|                  | 마이크로 피쉬   |         | 384장    | 592장    | 452장    |
|                  | 자료        |         | 297책    | 501책    | 395책    |
|                  | 신문        |         |         | 94종     | 94종     |
| 우<br>송<br>자<br>료 | 도서        | 종 수     | 1,831종  | 1,404종  | 1,230종  |
|                  |           | 책 수     | 2,345책  | 2,183책  | 1,714책  |
|                  | 연속<br>간행물 | 종 수     | 5,200종  | 727종    | 69,532책 |
|                  |           | 책 수     | 69,532책 | 67,844책 | 92,711책 |
|                  | 신문        | 종 수     |         | 56종     | 64종     |
| 부 수              |           | 88,613부 | 87,784부 | 80,566부 |         |

16) 北京圖書館業務處, “北京圖書館一九八八年各項業務工作統計”, 北京圖書館通訊, 1989년 제 3기, p.12.

17) “1989年其他各項業務工作統計”. 見:[北京圖書館]館長辦公室編, 1989年北京圖書館年報(北京:北京圖書館, 1990), p.61.

18) “1990年其他各項業務工作統計”. 見:[北京圖書館]館長辦公室編, 1990年北京圖書館年報(北京:北京圖書館, 1991), p.48.

또한 북경대학 도서관의 국제교환과는 북경대학 도서관의 대외 자료교류 부서이다. 이 부서는 국제적인 자료교환 업무를 1980년대 초부터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세계 50여 개의 대학도서관·공공도서관·출판기구·국가도서관 기금회·국제 또는 지역성 조직과 교환관계를 맺고 있다. 주요한 국가로는 일본·미국·영국·독일·이태리·러시아·한국·프랑스 등이 있다. 대외교환의 출판물은 북경대학이 출판한 자료이다. 예를 들면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北京大學學報:自然科學版]·[經濟科學]·[中外法學] 등이다. 1990년에서 1993년의 4년 동안 북경대학 도서관이 교환방식으로 접수한 외국의 도서는 모두 13,139종, 16,235책이고 연속간행물은 14,342책이다. 외국으로 우송한 자료는 각각 도서 1,702책, 연속간행물 12,373책이다.(〈표 3〉 참조)

〈표 3〉 1990년-1993년 북경대학 도서관 국제교환 통계

| 통계항목 |       | 통계년도 |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
|      |       | 종 수  | 책 수 |        |        |        |        |
| 접수자료 | 도 서   | 종 수  |     | 4,350종 | 3,159종 | 2,821종 | 2,809종 |
|      |       | 책 수  |     | 4,911책 | 4,107책 | 3,677책 | 3,540책 |
|      | 연속간행물 | 책 수  |     | 4,148책 | 4,013책 | 3,049책 | 3,132책 |
| 우송자료 | 도 서   | 책 수  |     | 437책   | 464책   | 445책   | 356책   |
|      | 연속간행물 | 책 수  |     | 3,218책 | 2,968책 | 3,102책 | 3,085책 |

또한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의 국제교환의 주요 대상은 각국의 과학원·도서관·학회·협회 및 기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도서정보 부서이다. 교환원칙은 상호교환·평등호혜이며 협상일치의 기초 위에 종류와 분량을 정한다.<sup>19)</sup> 中國科學院 文獻情報센터의 1989년 통계에 의하면 51개 국가의 1,238개 학술기구와 국제교환 관계를 수립하였다. 1989년에 교환된 연속간행물은 2,770종에 달한다.

필자는 국제 자료교환 업무 중에서 교환되는 자료의 수량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중시해야 하며, 평등호혜 상호교환의 원칙에 따라서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적 지향적으로 자기의 도서관에 필요한 문헌을 교환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국제 자료교환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국제 자료교

19) 辛希孟, 曲紅, 전세서, p.329.

환은 교육·과학연구·생산 등 방면의 수요를 보충할 수 있고 국제 자료교환으로 하여금 도서관의 자료 구입 경비가 부족한 모순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2. 文獻資源의 共有 問題

문헌자원의 공유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도서관이 이미 모두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문헌자원의 공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헌 저록의 표준화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문헌 저록의 표준화는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형식으로 문헌 저록의 원칙·내용·격식·규칙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과학적인 통일 규정을 만드는 것이며 아울러 그것을 실시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이다. 문헌 저록의 표준화는 문헌 저록을 규범화·계열화·통용화하여 정보교류와 문헌자원 공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도서관이 표준화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는 기초이고, 도서관의 현대적 관리를 실현하는 보장이며, 국제 정보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들의 공통인식이 되었다. 우리들의 이러한 공통인식에 기초하여 지금 현재 문헌 저록의 일치성 문헌 저록 규칙(또는 문헌 저록 표준)의 통일성의 각도에서 중·한 양국의 보통도서 저록규칙의 차이점에 대하여 나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 2.1 文獻 著錄의 一致性

문헌 저록의 일치성은 기입이 저록 형식상에서 진정 기술적인 규범화를 달성하여, 문헌 저록 성과로 하여금 일종의 국제통용의 교환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칭한다.<sup>20)</sup>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은 편목업무 절차를 국제적으로 표준화 하는 것이요, 특히 문헌 저록 일치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탄생한 국제표준이다. 이의 기원은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편목원칙 회의”로 소급된다. 회의는 문자순 목록의 기능 기입의 종류와 기능 문자순 목록 중의 문헌표목의 선택 및 저록 용

20) 段明蓮, 關懿軒, 西文文獻編目(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1), p.5.

어의 형식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이루어 유명한 파리회의에서 원칙성명을 통과시켰다.<sup>21)</sup> 그러나 이번 회의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되었고 대회의 장이 제출한 “편목규칙에 대하여 협의를 이루고 이것에 의하여 서목 저록을 전세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 편목업무를 완성하기 쉽게 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결코 참석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사실상이 건의의 실제 내용은 문헌자원 공유의 사상이며 문헌 저록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목적적인 것이다.

국제 편목원칙의 회의 후에 우리는 문헌 편목 업무를 실행하면서 점차 눈으로 읽는 서목 기록을 기계로 읽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전세계적으로 문헌자원의 공유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문헌 저록의 일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각국의 목록기입의 저록 내용을 통일하고 국제문헌의 표준서목 저록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IFLA는 1969년 국제 편목 전문가 회의의 결의에 근거하여 차례로 ISBD(M), ISBD(S), ISBD(CM), ISBD(NBM), ISBD(G) 등의 업무분과를 두었다. 노력 끝에 체계화된 국제표준 서목 저록이 탄생하였다.

이 국제표준은 세계 각국이 각종 문헌 저록을 통일하고 문헌 저록의 일치라는 원칙을 실현하려는 기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문헌 전파의 길을 소통하려는 요구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각국 도서관계의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1983년에서 1987년 사이에 中國 文標會 제 6분회는 ISBD에 의거하여 GB3792.2-85[普通圖書 著錄規則](Bibliographical Description for Monographs)·GB3792.3-85[비도서자료 저록규칙](Bibliographical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GB3792.7-87[고서저록규칙](Bibliographical Description for Antiquarian Books) 등 일련의 문헌 저록 방면의 국가표준을 제정하였다. 1985년 중국도서관학회는 ISBD를 적극 적용하며, AACR 2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개별적으로 수용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중국의 서양서 편목업무를 실제 수요를 결합하여 [서양서 저록조례](Description Cataloguing Rules for Western Language Materials)를 제정하였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도서관은 [普通圖書 著錄規則]을 이용하여 중문 도서를 저록하고 있으며, 서양서는 [서양서 자록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1983년 한국도서관협회는 ISBD의 정신에 근거하여 [한국목록규칙](3판)

21) 全國第一中心圖書館委員會西文圖書卡片聯合編組編譯, 1961年國際編目原則會議論文選譯(北京:中國科學院圖書館, 1962).

을 제정하였고, 1990년에는 3·1판을 출판하였다. 문헌 저록의 일치성 문제를 더 자세히 서술하기 위하여 [서양서 저록조례]·[普通圖書 著錄規則] 및 [한국목록규칙]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표 4〉 참조)

거시적 각도에서 문제를 보면 [서양서 저록조례]·[普通圖書 著錄規則] 및 [한국목록규칙] 등 이 세가지 저록규칙은 저록항목의 설치 저록항목의 순서 표시부호의 사용면에서 기본적으로 ISBD(M)과 일치성을 유지하여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면 이 세 저록규칙은 여전히 미세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표 4〉 중·한 양국의 도서 저록규칙의 저록 항목 비교

| [서양서 저록조례]   | [普通圖書 著錄規則]       | [한국목록규칙]3.1판       |
|--|-------------------|--------------------|
| 서명과 책임설명사항(Title and statement responsibility area)                | 서명과 책임설명사항        | 서명 저자사항            |
| 본서명(Title proper)  | 본서명               | 본서명, 별서명           |
| 일반 문헌의 유형 표시(General material designation)                         | 문헌유형 표시부호         |                    |
| 병렬서명(Parallel titles)  | 병렬서명              | 대등서명               |
| 부서명 및 기타 서명 정보(Other title information)                            | 부서명 및 서명설명 정보     | 부서명 및 (또는) 잡제      |
| 책임설명(Statement of responsibility)                                  | 책임설명              | 권차나 회차나 년차<br>저자표시 |
| 판본사항(Edition area)   | 판본사항              | 판사항                |
| 판본설명(Statement of edition)   | 판차 및 기타 판본        | 판표시                |
| 본판에 관련된 책임설명(Statements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the edition) | 판식과 판본에 관련된 책임 설명 | 특정판에 관련된<br>저자표시   |
| 문헌 특수 세부사항(Material specific details area)                         | 문헌 특수 세부사항        |                    |
| 출판발행사항(Publication, distribution, etc. area)                       | 출판발행사항            | 발행사항               |
| 출판발행지(Plac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 출판지 또는 발행지        | 발행지                |
| 출판발행자(Name of publisher, distributor, etc.)                        | 출판자 또는 발행자        | 발행처                |
| 출판발행년월(Date of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 출판년월 또는 발행년       | 발행년                |

|   |                  |  |
|---|------------------|--|
| 인쇄지, 인쇄자, 인쇄년월(Place of manufacture, name of manufacturer, date of manufacture) | 인쇄지, 인쇄자, 인쇄년    |  |
| 형식기술사항(Physical description area)   | 형식기술사항           | 형태사항   |
| 문헌수량 및 그 단위(Extent of item, including specific material designation)            | 페이지 수 또는 권(책) 수  | 면 수 및(또는) 권 책 수  |
| 도표 및 기타 형태세목(Other physical material)   | 도표               | 삽도표시   |
| 크기(Dimensions)  | 크기               | 크기   |
| 부록설명(Accompanying material statement)   | 부록               | 말림자료   |
| 총서사항(Series area)   | 총서사항             | 총서사항   |
| 총서본서명(Title proper of series)   | 본총서명             | 총서의 본서명  |
| 병렬총서명(Parallel titles of series)  | 병렬총서명            | 총서의 대등서명   |
| 총서부서명 및 기타 총서명 정보(Other title information of series)                            | 부총서명 및 기타 총서명 정보 | 총서의 부서명 및 (또는)잡제   |
| 총서책임설명(Statements of responsibility relating to series)                         | 총서편자             | 총서의 저자표시   |
| 총서의 ISSN 번호(ISSN of series)   | ISSN 번호          | 총서의 ISSN 번호  |
| 총서번호(Numbering within series)   | 총서번호             | 총서의 권호표시   |
| 부속총서명(Subseries)  | 부속총서명            | 하위총서<br>두개 이상의 독립적 총서  |
| 주기사항(Note area)   | 주기사항             | 주기사항   |
| 문헌표준번호와 획득방식사항(Standard number and terms of availability area)                  | 문헌표준번호와 획득방식사항   | 서적번호 구독조건 사항   |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국제표준도서번호         | 서적번호   |
|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                  |  |
| 식별서명(Key title)   |                  |  |
| 장정(Qualification)   | 장정               |  |
| 획득방식(Terms of availability)   | 획득방식             | 구독조건 표시(가격 표시 장정 등 표시)<br>두종 이상의 서적번호가 있는 도서의 서적번호와 구독 조건 표시 |
| 부출사항(Tracing)   |                  |  |

### 2.1.1 저록 항목의 설치

문헌의 내용과 형식 상의 특징을 게재하는 기록사항을 저록 항목(Area)이라고 칭한다. 기입(Entry)은 문헌의 각종 특징을 설명하는 저록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양서 저록조례]는 부출항목(Tracing)을 설치하였다. 부출사항은 도서관업무의 주석에 속한다. ISBD(M)는 이 항목을 설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普通圖書 著錄規則]과 [한국 목록규칙]은 모두 이 항목을 문헌저록의 기본구조의 범위 내에 넣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서관의 카드목록에 부출항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기입사항 중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이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일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헌저록의 일치성을 실현하기 어렵다. 예를들면 [普通圖書 著錄規則]은 “중국 고대의 모든 저자(靑代 이전)는 반드시 성명 앞에 왕조의 명칭을 저록하고 원괄호를 한다. 책임자의 시대 하한은 일반적으로 沒年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의 개인 책임자는 原題를 따라서 사실대로 저록하되 만약 성명의 원문 및 생몰년이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국가가 명확할 때에는 中譯 성명의 앞에 국가를 저록하고 그 뒤에 원문 및 생몰년을 저록하며 모두 원괄호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예:

金匱要略研究/(漢)張仲景述:(晉)王叔和集.

貨幣學派與凱恩斯學派:他們對貨幣理論的貢獻/(英)摩根 (B. Morgan)著

ISBD(M)·[서양서 저록조례] 및 [한국목록규칙]은 모두 위에서 서술한 규정이 없다. 필자는 [普通圖書 著錄規則]이 서명과 책임설명사항에서 중국 靑代 이전의 모든 책임자의 왕조와 외국 저자의 국가·성명·원문·생몰년을 저록하도록 요구하는 까닭은 각 시대와 각 국가의 동명이인을 구별하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명과 책임설명사항에서 동성동명 저자의 구별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문헌 저록의 정확성 원칙을 위배하여 사실대로 문헌의 주요 정보원에 의하여 저록하지 않은 것이다. 동성동명 저자의 구별문제는 저록

22) 全國情報文獻工作標準化技術委員會第六分委員會起草, 中華人民共和國國家標準普通圖書著錄規則, 修訂送審稿 ([出版地: 出版者 未詳], 1993), p.11.



표목(Heading) 또는 접근점(Access point)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만약 서명과 책임설명사항에서 동성동명 저자의 구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각 국, 각 시대의 동성동명 저자도 반드시 통일되고 규범화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2.1.2 기입의 저록형식

ISBD(M)은 기입의 저록형식과 표목의 저록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방면에서 통일되지 않은 현상은 비교적 심각하다. 지금 이상에서 언급한 세 저록규칙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서양서 저록조례]는 책임자의 주요기입은 단락저록형식(Typed form for spacing indention)을 적용하고, 서명의 주요 기입은 행잉인덴션형식(Typed form for hanging indention)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普通圖書 著錄規則]은 도서관 목록 중의 기입은 모두 단락 저록형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기입(Main entry)과 부출기입(Added entry)의 개념을 폐지하고 그에 따라 “프레임기입”(Framework)을 도입한 것이다. “프레임기입”이란 저록표목이 없는 기입으로, 도서관 목록에 사용할 때 대체표목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각각 다른 각도로 문헌의 물질 외형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게재하는 기입을 파생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목록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입 저록형식과 [普通圖書 著錄規則]의 근본적 구별은 일률적으로 행잉인덴션형식을 적용한 데에 있다.<sup>23)</sup>

#### 예 1. [서양서 저록조례] 책임자 주요 기입의 단락 저록형식 적용 예

|         |   |
|---------|---|
| G254.31 |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  |
| An46    | prepared b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t al.] : edited by Michael Gorman and Paul W. Winkler.       |
| 100863  | --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Ottawa :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1978.<br>620 p. : 26 cm. |

○

23) 韓國圖書館協會制定, 韓國目錄規則: 記述·標目·유령指示篇, 3.1版(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0), p.101.

## [서양서 저록조례] 서명 주요기입의 행임인덴션형식 적용 예

G254 Hunter, Eric J.  
 H916 Cataloguing / Eric J. Hunter and  
 K. G. B. Bakewell. -- 2nd, rev. and expanded ed. -- London : Clive  
 Bingley, 1983.  
 100871 xix, 222 p. : 23 cm.  
 Includes bibliographies and index.  
 I. Bakewell, K. G. B., jt. auth. II. Title.

○

## 예2. [普通圖書 著錄規則] 저록형식--분류기입

G254 圖書館學情報學詞典/周文駿主編:邵獻圖  
 414 副主編.--北京:書目文獻出版社,1991.12  
 734頁:19cm.  
 901994  
 I.圖...II.①周...②邵...III. IV.G254

○

## 예3. [한국목록규칙] 저록형식--분류기입

025-1983  
 025 도서관조직경영론 / 김세익 저. - 증보판. -  
 83가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3.  
 242면 : 23센치. - (도서관학강의 : 4)  
 849843  
 2.저자. 3) 025-1983

○

이상의 예는 [서양서 저록조례] [普通圖書 著錄規則] 및 [한국목록규칙]이 기입의 저록형식과 저록방법이 대동소이하고 서로 큰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도서관 서목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중·한 양국의 저록규칙이 ISBD(M)의 기초 위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비단 양국간 서목데이터의 공유와 교류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이다.

### 2.1.3 용어의 내용과 범위

[한국목록규칙] 중의 “별서명”(Alternative title)과 [普通圖書 著錄規則]의 “별명”(Variant title)은 겨우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용어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다. 현대 중국어에서 “별서명”과 “별명”은 같은 개념으로 “한 문헌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서명을 가지고 있을 때 서명사항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서명”을 지칭한다. 예를들면 [審視瑤函]은 출판설명에서 본 도서는 [眼科大全]이라고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眼科大全]은 서명 페이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별명이다.<sup>24)</sup> 별명은 주기사항에 저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목록규칙] 중의 “별서명”은 [普通圖書 著錄規則]·[서양서 저록조례] 중의 “교체서명”(Alternative title)과 같은 개념으로, “문헌에 본서명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이 두 부분을 ‘or’ 또는 ‘or’에 상응하는 접속사로 접속하는데, 그 본서명의 두번째 부분을 교체서명이라고 칭한다.”는 뜻이다. 교체서명은 두 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교체서명은 본서명의 구성 부분이며 서명의 주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점이다. 또 하나는 교체서명은 ‘or’ 또는 ‘or’에 상응하는 접속사로 유도되는 점이다.<sup>25)</sup>

예:

|                                  |                       |
|----------------------------------|-----------------------|
| 端宗大王實記, 一名, 莊陵血史                 | ([한국목록규칙] 중의 별서명)     |
| 袖珍神學, 或, 簡明基督教詞典                 | ([普通圖書 著錄規則] 중의 교체서명) |
| Twelfth night, or, What you will | ([서양서 저록조례] 중의 교체서명)  |

24) 周文駿主編, 圖書館學情報學詞典(北京:書目文獻出版社, 1991), p.36.

25) 段明蓮, 關懿霖, 전계서, p.75.

종합하면 각 국의 목록 저록조례는 그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문헌자원의 공유를 위하여 최신성 정확성 규범성을 갖춘 서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이로 하여금 공동으로 표준적이고 통용적인 서목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도록 하니, 문헌자원의 공유를 국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전하여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 2.2 文獻 著錄規則의 統一性

문헌 저록규칙(또는 저록표준)의 통일성은 각종 문헌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의 묘사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 내용은 일정한 범위의 통일, 일정한 정도의 통일 및 일정한 시간의 통일을 포함한다.

일정한 범위의 통일이란 문헌 저록규칙의 적용 범위를 지칭한다. 中國 文標會 제6분회가 제정한 GB3792.2-85[普通圖書 著錄規則], GB3792.3-85[비도서자료 저록규칙] 등 일련의 문헌 저록 국가표준은 모두 중국의 통일된 문헌보도와 검색체계를 건립하고 완전하게 하여 국제 서목정보 교류를 전개하고 더 나아가 문헌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 적용 범위는 국가서목과 각종 유형의 목록을 편찬하는 것이다. [한국목록규칙]은 한국의 도서관에서 단행본 도서·총서·다책서 등을 저록하는데 적용되어 도서저록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치성을 확보하고 있다. 필자는 중·한 양국의 문헌 저록규칙이 모두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향하여 규범화·표준화·통용화된 서목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정도의 통일이란 문헌 저록규칙에 어떠한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이 통일되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은 잠시 통일되지 않아야 하는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을 지칭한다. [한국목록규칙]은 분명하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한글·중문·영문 등의 문자로 집필한 도서를 저록하는 데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이나 동일 저작의 다른 판본 혹은 번역본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도서관 목록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는 바로 中國 文標會 제6분회가 일찌기 문헌 저록표준을 제정하던 초기에 제출한 “4 統一 원칙” 중의 하나이다. 즉, 중국어와 외국어 문헌은 저록원칙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한 양국의 문헌 저록규칙은 문헌의 물질외형 묘사 방면에서 ISBD의 기초 위에 협조·규범·통일을 구할 수 있다.

일정한 시간의 통일이란 문헌저록규칙이 일정한 시기의 편목 기술과 문헌자원 공유

정도의 반영이라는 것을 지칭한다. 편목 기술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서 발전할 때, 문헌자원의 공유 정도가 한 국가에서 여러 국가 내지는 세계로 매진할 때에 문헌 저록규칙은 실제 수요보다 낙후됨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문헌 저록규칙의 상대적인 안정성이다. 규칙을 수정한다는 것은 결코 전반적으로 원래 있었던 규칙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요, 합리적인 부분을 직접 새로운 규칙에 집어넣고 이미 실효가 지난 부분은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는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낡은 규칙에서 편목업무의 실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나온 것으로, 기존의 저록규칙에 대한 계승과 발전이다.

### 3. 中·韓 양국의 相互協力에 대한 建議

문헌 저록의 정확성과 일치성, 문헌 저록규칙(또는 저록표준)의 통일성은 모두 도서관 문헌자원 공유의 필수조건으로, 문헌저록 표준화의 한 구성 요소이다. 문헌저록의 표준화는 도서관 자동화의 기초이다. 이는 표준적이고 통용적인 서목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하는데 유리하고, 국가 간의 문헌검색 협력망을 건립하는데 유리하고, 각국 도서관계의 횡적 관계 학술교류 및 기술합작을 강화하는데 유리하고, 각국의 도서관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러한 모든 것에 비추어 필자는 다음에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여 참고로 제공하고자 한다.

1. 中·韓 양국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中·韓 양국의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유관 부서 또는 학술기구는 업무 상 필요와 각자의 실력에 근거하여 평등호혜의 기초 위에 목적 지향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도서관 또는 학술단체를 선택하여 쌍방 또는 다방 면의 학술교류와 합작을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들면 북경도서관과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중국도서관학회, 中國 文標會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다. 한국문헌정보학회는 학술교류 인원교류 또는 도서관업무의 합작 등을 건립하고 발전시켜 상호 간의 이해와 상부상조를 부단히 증진할 수 있다.
2. 中·韓 양국은 전력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헌업무 표준화의 발전 진도를 추진한다. 中·韓 양국 간의 교류와 합작은 전통적인 국제자료교환 상호대

차로부터 점차 표준화·규범화·통용화된 문헌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국제사회에 정보상품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하나의 혁신으로, 이 혁신은 각 방면 인사들의 대대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우선 통용될 서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공통으로 준수할 문헌 기록규칙이 있어서 문헌기록의 표준화를 실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할 hard의 규격도 관련 국제표준을 채용해야 한다. 현재 중·한 양국의 비디오 테이프의 규격이 달라서 통용할 수 없음을 이미 발견하였다. 만약 데이터를 저장할 계산기의 디스켓과 레이저 디스크의 규격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곧 공유할 수 없고, 이를 상품화하여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는 더욱 없다.

3. 학술연구를 강화하여 ISBD를 완전하게 한다. ISBD는 IFLA 예하의 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제정한 것으로 각종 문헌이용에 제공하는 국제표준이다. 표준 초안 작성자의 연구경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ISBD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음을 면하기 어렵다. 중·한 양국은 인력, 물력, 재력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동양 서적의 특징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기록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의 견해를 IFLA에 제출하여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동양 서적의 물리적 외형의 특징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

4. 도서관학정보학 영역의 외국어 인재를 배양한다. 언어는 교류를 수행하는 공구이다. 현재 중·한 양국의 학술교류에는 상호 간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제가 너무 없어서 늘 영어를 빌려 쓰고 있다. 영어로 학술교류를 수행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필경 중·한 양국 국민의 모국어가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이해하는 인재를 배양하여 직접 우리의 언어로 교류한다면 언어의 장애도 극복하고 교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989年其他各項業務工作統計. 見:[北京圖書館]館長辦公室編. 1989年 北京圖書館年報. 北京:北京圖書館, 1990, p 61.
- 1990年其他各項業務工作統計. 見:[北京圖書館]館長辦公室編. 1990年 北京圖書館年報. 北京:北京圖書館, 1991, p 48.
- 北京大學校長辦公室編. 北京大學.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3, p 4.
- 北京大學圖書館. 1902-1992.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2.
- 北京圖書館業務處. “北京圖書館1988年各項業務工作統計”. 北京圖書館通訊. 1989년 제 3기, p 12.
- “第3屆中文信息處理國際會議在北京舉行”. 現代圖書情報技術. 1993년 제 1기, p 63.
- 杜克. “中國圖書館事業的過去, 現在和將來”. 北京圖書館館刊. 1992년 제 2기, pp 19-22.
- 段明蓮, 關懿嫻編著. 西文文獻編目. 北京:北京大學出版社, 1991, p 372.
- 韓國圖書館協會制定. 韓國目錄規則:記述, 標目 올림指示篇. 3.1판. 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90, p 101.
- 路學. “90年代圖書館現代技術國際研討會在京隆重召開”. 現代圖書館情報技術. 1993년 제 1기, p 63.
- 全國第一中心圖書館委員會西文圖書卡片聯合編輯組編譯. 1961年國際編目原則會議論文選譯. 北京:中國科學院圖書館, 1962.
- 全國情報文獻工作標準化技術委員會第六分委員會起草. 中華人民共和國國家標準普通圖書著錄規則. 修訂本送審稿. [出版地, 出版者 未詳], 1993, p 21.
- 全國情報文獻工作標準化技術委員會章程. 見:全國情報文獻工作標準化技術委員會秘書處. 情報文獻工作標準化手冊. [北京]:該秘書處, 1989, pp 7-12.
- 邵文杰. “記國際圖聯1988年大會及兩次會後會”. 北京圖書館通訊. 1989년 제 1기, pp 77-79.
- 王漢平. “北京'96IFLA大會籌備工作團赴巴塞羅那側記”. 北京圖書館館刊. 1993년 제 3/4기, pp 196-197.
- 辛希孟, 曲紅. “中國科學院文獻情報系統的國際學術交流與合作”. 見: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北京:中國科學院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pp 328-341.

- 張帆. “十年國際學術交流的回顧與反思”. 見:中國圖書館學會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書目文獻出版社. 1991, pp 83-89.
- 張季華. “北京圖書館1992年1-6月大事記”. 北京圖書館館刊. 1992년 제 1기, p.140.



文摘

## 中國圖書館學情報學領域的國際化問題

段明蓮\*

本文從學術交流、人員交流、書刊交換等角度闡述了中國圖書館學情報學領域的對外交流與合作問題，明確提出中韓兩國在這一領域的交流與合作應從傳統的國際書刊交換、館際互借，逐漸走嚮開發標準化·規範化·通用化的文獻數據庫，並嚮國際社會提供信息產品。

為了達到文獻資源共享的目的，本文將中國的〈〈西文文獻著錄條例〉〉、〈〈普通圖書著錄規則〉〉同〈〈韓國目錄規則〉〉進行了分析比較，對其差異作了初步剖析，並以文獻著錄的一緻性，文獻著錄規則的統一性的角度論證了文獻工作標準化是世界各國實現文獻資源共享的必由之路。

---

\* 中國 北京大學 信息管理系 副教授  
韓國 延世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客座教授

## ABSTRACTS

**Internalization Problem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g-lian Duan\*

The article sets forth a problem 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angles of academic and publication's exchange. It points out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should be developed from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and interlibrary loan to opening up standard, authority and current database on publications step by step. China and Korea should supply the database to all of the world.

In order to come up to shared resources, the author has compared the Descriptive Cataloguing Rules for Western Language Materials, and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for Monographs with the Korean Cataloguing Rules for Description, and analyzed their different. In the end, the article presents the result that the documentation standardization is the only way of accomplishing shared resources in the world from indentity of description for publications and materials, and unity of cataloguing rules.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eking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